

# 幸徳秋水『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

(東京: 警醒社書店, 1901)

박양신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 1. 들어가며

20세기의 첫 해인 1901년, 일본에서는 '제국주의'를 서명에 단 세 권의 책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幸徳秋水『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1901. 4), 浮田和民『帝國主義と教育』(1901. 9), 폴·에스·라인슈 저, 高田早苗 譯『帝國主義論』(1901. 12)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출간되어 일본에서 최초로 제국주의를 논한 저서라는 영예를 차지한 것이 바로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이하『帝國主義』)이다. 이 책은 다른 2권의 책이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술된 것과 달리 비판적 관점에서 제국주의를 논하고 있다.

## 2. 서지 및 출판사항

『帝國主義』는 1901년 4월 20일 본문 134면, 사 판 크기로 발간되었다. 같은 해 5월 10일에 재판, 1903년에 3판, 1907년에 4판이 발간되었다. 재판에

는 초판에 없던 「본서에 대한 비평」이 16면에 걸쳐 실려 있다. 이는 신문, 잡지 등에 발표된 소개 및 서평 16편을 모아 게재한 것으로, 이것이 초판 발간 후 20일 만에 재판을 발행한 이유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처럼 많은 서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책에 대한 당시 일본 사회의 관심의 정도를 말해 준다. 이 책은 저자인 고토쿠가 '대역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1910년 9월 3일에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종전 후 1952년에 이와나미(岩波)문고로 복간되었고, 『幸徳秋水全集』 제3권(明治文獻, 1968)에 수록되었다.

### 3. 저자에 대하여

고토쿠 슈스이(1871~1911)는 메이지(明治)기의 저널리스트이자 초기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유명한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1871년 고치(高知)현 하타(幡多)군 나카무라(中村)정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덴지로(傳次郎). 나카무라에서 중학교 3년까지를 다니고, 1887년에 도쿄로 상경하여 정치가 하야시 유조(林有造)의 서생으로 들어갔으나 보안조령 발표로 도쿄에서 추방당한다. 이듬해에 오사카에서 자유민권사상가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의 서생이 되어 조민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1893년 『自由新聞』에 입사하여 저널리스트로서 첫발을 내딛은 뒤 『廣新聞』, 『中新聞』을 거쳐 1898년에 『萬朝報』사 기자가 된다. 같은 해 사회주의연구회에 가입하여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차차 사회주의로 경사해 갔다. 1901년 4월에 「나는 사회주의자다」라는 글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귀의를 선언하고, 5월에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가타야마 센(片山潛) 등과 함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1901년 4월에 출간한 『帝國主義』는 그의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기 정립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03년 10월, 고토쿠는 러일전쟁 개전론에 반대하여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함께 『萬朝報』사를 퇴사하였다. 그 뒤 사

카이 등과 헤이민사(平民社)를 조직하고 주간지 『平民新聞』을 발행하여 반전을 주장하였다. 1905년 필화사건으로 투옥되었으며, 출옥 후 1905년 11월부터 이듬해에 걸쳐 미국에 체재하면서 미국의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무정부주의로 경사되어 귀국한다. 귀국 후는 직접행동론을 제창하며 활동하다가 1910년 천황암살계획인 대역사건에 연루되어 검거, 이듬해 처형되었다. 대표저서로는 『社會主義神髓』(1903), 『社會民主黨建設者ラサル』(1904), 『基督抹殺論』(1911) 등이 있다.

### 4. 내용

고토쿠의 첫 저서인 『帝國主義』는 그가 1900년 11월부터 1901년 2월에 걸쳐 『千代田毎夕新聞』에 연재했던 「大逆無道錄」, 「刀尋段段錄」, 「帝國主義」의 세 논설을 토대로 가필, 편집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 책 서두에는 우치무라 간조의 서문이 실려 있고, 이어서 고토쿠의 「例言三則」이 나온다. 본문은 제1장 서언(緒言), 제2장 애국심을 논함, 제3장 군국주의를 논함, 제4장 제국주의를 논함, 제5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세 논설은 각기 제2장, 제3장, 제4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山田朗, 「幸徳秋水の帝國主義認識とイギリス‘ニューラディカリズム」, 『日本史研究』 265, 1984년 9월)에 의하면 이 책은 영국에서 출간된 로버트슨(John Mackinnon Robertson, 1856~1933)의 *Patriotism and Empire*(London: Grant Richards, 1899)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로버트슨은 스코틀랜드 아란섬(Isle of Arran) 출생으로 *Edinburgh Evening News*, *National Reformer* 등의 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이며, 1906년부터 1918년까지 하원 의원을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형성된 신급진주의 그룹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그 그룹에는 『제국주의론』(1902)의 저자인 홉슨(John Atkinson Hobson)도 들어 있었다. 당시 신급진주의는 전통적인 자유

주의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사회문제 및 사회 차원에서의 개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점에서 사회주의로의 접근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 반제국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윤리운동을 기초로 결집되어 있었다는 특징을 갖는데, 로버트슨의 저서에서 보이는 제국주의 비판이 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띤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토쿠는 『所謂戰爭文學』(『日本人』 1900년 9월 5일호)에서 로버트슨의 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읽고 『제국주의』를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로버트슨의 책은 서론, 결론 없이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I. The Spring of Patriotism and Militarism, Part II. The Militarist Regimen, Part III. The Theory and Practice of Imperialism. 이는 고토쿠 『帝國主義』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 각기 대응한다. 그러나 『帝國主義』가 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긴 것은 아니며, 문맥에 따라 순서를 바뀔 원용하기도 하고 적소에 일본의 사례를 삽입하기도 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원서로부터의 번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책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은 원서로부터의 번역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히 『애국심과 제국』이라는 원서명과 달리 『帝國主義』로 서명을 단 것은 그 시점, 고토쿠의 문제의식의 소재를 말해 주고 있다.

『帝國主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언에서는 구미 각국 및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유행하는 제국주의 현상을 지적한 뒤, 제국주의가 자유, 정의, 박애, 평등이라는 국가 경영의 이상에 배치된다면 그 해독은 우려할 만한 것이라며 제국주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2장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해 “제국주의는 소위 애국심을 날줄로, 군국주의를 씨줄로 해서 짜낸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먼저 애국심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애국심은 ‘측은지심’이나 ‘자선의 마음’과는 다르며, 오히려 ‘동물적 천성’에서 근원한다고 주장한다. 즉 애국심은 ‘호전심’이며, 호전심은 곧 동물적 천성이라는 것이다. 근대 애국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죄악의 최고조’를 지적하고 전쟁 후의 여러 폐해를 나열한다.

제3장에서는 군국주의에 대해 비판을 전개한다. 군비확장의 원인을 국가 방위, 보호가 아닌 ‘광열(狂熱)’ ‘허과(虛誇)’ ‘호전적 애국심’에서 구하고, 군비확장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한다. 해상권력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마한(Alfred. Thayer Mahan) 대령을 거론하며 군비가 전쟁에 대한 억지(抑止)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비가 오히려 전쟁을 촉발한다고 반박한다. 또 전쟁이 문예, 과학, 공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런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박하고, 전쟁 대신 평화를 증진시킬 것을 주장한다.

제4장에서는 제국주의를 “대제국의 건설을 의미한다. 대제국의 건설은 곧 영속(領屬)판도의 대확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비판해 간다. 우선 근대의 제국주의를 ‘국민적 제국주의’ 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의에 대해 과연 제국주의의 주체가 국민인가라고 반문한다. 제국주의의 주체는 소수의 군인, 정치가, 자본가이며 국민들 사이에는 빈부 격차의 증대, 빈곤, 기아, 죄악의 증가가 나타날 뿐이라고 반박한다.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과잉인구의 배출, 무역, 방위에 대해 각기 반론한다. 제국주의는 국민의 복리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제5장 결론에서는 20세기의 위협인 제국주의는 ‘페스트의 유행’과 같다고 비유하고, 애국심을 그 병균, 군국주의를 전염의 매개체로 비유한다. 그는 ‘志士義人’의 분기를 촉구하며 ‘세계적 대혁명의 운동’을 개시하여 제국주의를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고토쿠의 『帝國主義』는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근대 일본에서 제국주의를 논한 최초의 문헌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국주의를 논한 글들은 있지만 대개 신문지상에 게재된 논설류이며, 단행본으로는 이 책

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899년 당대 3대 신문기자로 꼽히던 구가 가쓰난(陸羯南)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사이에서 신문 『日本』과 『國民新聞』 지상을 통해 '제국주의'의 성격 규정을 둘러싸고 논전이 전개된 이래 식자들 사이에서는 '제국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1900년 중국에서 발생한 의화단사건은 일본의 제국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획기가 된다. 의화단 진압을 위해 조직된 8개국 연합군에 일본군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만 명의 군대를 보내 연합군의 주축을 이루며 제국주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帝國主義』의 토대가 된 글들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한 1900년 11월은 바로 의화단이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어 사태가 진정된 후의 시점이다. 이처럼 열강의 일원으로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동을 전개한 시점에서 제국주의 비판서가 등장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국주의'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크시즘에서 설명하는 제국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시즘이 정착하기 이전 일본의 초기사회주의는 "산업혁명기에서 독점 자본 확립기에 걸쳐 자본주의의 변혁을 목표로 자유, 평등과 사회의 진보를 추구했던 다양한 사상군"(荻野富士夫, 1993, 『初期社會主義思想論』, 不二出版, 27쪽)으로 규정되듯이 이 시점에서 고토쿠의 사상도 마르크시즘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고토쿠가 규정한 '제국주의'란 애국심과 군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영토팽창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동물적 천성'에 연원한 것으로 도덕적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의 제국주의 비판이 사회구조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로버트슨의 원서를 저본으로 한 데서 오는 영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성격의 제국주의 비판을 자연스럽게 수용토록 만든 고토쿠가 갖고 있던 유교적 사상 배경도 중요하다. 글 전체에서 '야만'과 '문명고상', '獸人'과 '大人君子' 등을 대비시키는 분석법을 전개하고, '志士義人'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 등에서는 그의 유교적 이상주의가 서양사상 수용의 공명판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처럼 『帝國主義』는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담론을 고찰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이다. 제4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국민적 제국주의'론은 다름 아닌 앞서 언급한 우키타(浮田和民)의 『제국주의와 교육』, 다카타(高田早苗)의 『제국주의론』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의이다. 재판에 수록된 여러 서평들의 논조에도 고토쿠의 제국주의 비판을 지지하는 입장과 경제적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이 갈려 있어 함께 참조하면 당시 제국주의 담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다카타의 『제국주의론』은 Paul Samuel Reinsch, *World Politic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s Influenced by the Oriental Situation*(1900,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London, Macmillan and Co., Ltd.)을 초역한 것이다. 다카타는 이 책을 『제국주의론』으로 출간하기 전에 먼저 화장본(和裝本)으로 출간한 바 있는데(1900~1901년 사이) 그때는 『レイニッシュ氏 十九世紀末世界之政治』로 원서명의 일부를 그대로 제목으로 달았었다. 1901년 말에 다시 출간하면서 서명을 『제국주의론』으로 바꾼 것은 이 또한 그 시점에서 일본 지식인의 제국주의에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인시의 이 책은 일본인에 의해 대만에서 한문으로도 번역되었다(羅因須 著, 鈴木虎雄 譯, 1904, 『列國政治論』, 台北: 台灣日日新報社).